

“왜 이제 왔어” 요양병원 비닐 벽 앞 애뜻한 상봉

광주 등 거리 두기 완화 비접촉 면회실 마련

할머니 “식구들 모두 불러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왜 이제 왔어.” “그동안 허락을 못 받았어. 엄마 왜 이렇게 아쉬워. 너 무 보고 싶었어.”

9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강남요양병원에는 애뜻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로 이날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가 재개됐다.

지난 추석 이후 6개월 만에 입원 중인 A(90·여)씨를 만나러 A씨의 딸·아들·며느리 등 5명이 모였다.

딸 손에는 두유·요구르트가 담긴 간식 봉지가 들려 있었다.

A씨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비접촉 면회 장소’ 앞에 멈춰 섰다.

아들은 탄성과 함께 비닐 벽 사이로 A씨와 손을 맞대며 애뜻함을 전했다.

아들은 A씨에게 또렷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어머니 잘 계시제? 보고 싶었어”라며 안부 인사를 건넸다.

담요 위 뼈마디가 드러난 A씨의 두 손을 보며 딸은 “왜 이렇게 말라지셨나”라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A씨를 바라보는 자녀의 눈에 반가움과 걱정의 눈빛이 공존했다.

간만의 재회에 A씨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A씨는 자녀에게 “(방문해서) 고맙다 고마워. 다들 그대로네. 건강해야 해”라며 안부를 전했다. 며느리에게도 “밥 해 먹고 사나라 애쓰다”고 했다.

이내 “나는 맨날 놀아. 왜 이제 왔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머니(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마음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라며 A씨에게 면회 공백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식구들 모두 불러서 밥 한 끼 먹이는 게 소원이네”라는 바람을 전했다.

재회 기념으로 비닐 벽을 사이에 둔 채 6명의 가족 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반가움은 잠시였다. 20여 분만에 면회가 끝났다. 휠체어가 병실로 들어갈 때까지 자녀와 A씨는 연신 두 손을 흔들며 아

쉬움을 전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면회가 제한됐다. 일부 기관은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도 제한하면서 환자·가족의 불안·고충이 커졌다. 또 면회 제한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환자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 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단, ‘접촉 면회’ 대상은 의사 판단 하에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응급 환자다.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호복과 신발 커버 등 보호용구를 착용한 뒤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최이슬기자



개학 맞아 교내 매점 위생 점검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9일 광주 북구 관내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개학을 맞아 기초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 AZ·화이자 백신 접종률 61.8%...이상반응 109명

요양병원 종사자·1차 대응요원 등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1.8%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9명이 이상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2만8816명 중 1만7804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61.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109명이 발열, 근육통, 국소 알레르기 등

이상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65개소)은 접종대상자 8901명 중 8046명이 접종을 마쳐 90.4%의 접종률을 보였다. 이상반응은 19명이다. 2083명이 접종 대상인 요양시설(83개소)은 1789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 85.9%의 접종률이며 9명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전남대학교

병원 등 병원급(102개소) 의료진과 종사자 접종은 1만5137명 중 7388명(48.8%)이 접종했으며 81명이 이상반응을 보였다.

총 1552명이 접종 대상인 1차 대응요원은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436명(28.1%)이 접종을 마쳤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1143명 중 145명(12.7%)이 접종했으며 이상반응 보고는 없다. 김민정기자

공공기관 입주업체 직원·전남대치과병원 실습생 확진

밀접촉자 자가격리 통보...건물·병원 정상운영

광주 북구의 모 공공기관 건물 입주업체 직원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실습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북구 오룡동의 공공기관 건물 입주업체 직원 A(광주2124번 확진자)씨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실습을 한 B(광주2132번)씨가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출근한 뒤 구내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등은 착용하고 있었으며 CCTV 확인결과 건물내 이동 동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건물내 위험도 평가 결과 ‘보통’으로 판단했으며 같은 시간 대 식당 이용자 247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234명은 음성, 13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 동료 2명은 2주 자가격리, 128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건물 방문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해 입주 업체 명단과 CCTV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B씨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실습생으로 지난달 27일 전북123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B씨가 치과병원에서 실습을 한 것을 확인한 뒤 가족 등 접촉

자 26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122명 음성, 146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현장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B씨가 병원 내 지정된 공간에서 머물렀고 식사 할 때 다른 실습생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학생 69명, 의료진 등 직원 15명, 환자 26명 등 총 110명 자가격리, 226명에 대해 수동감시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수동감시 대상자 등에게는 ‘증상 확인 기록지 작성’ 등을 요청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소독·방역을 마쳐 병원 등은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 강행 60대 업주에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노래주점 문을 연 60대 운영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시법 형사4단독 서근관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운영자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

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도내 한 노래주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